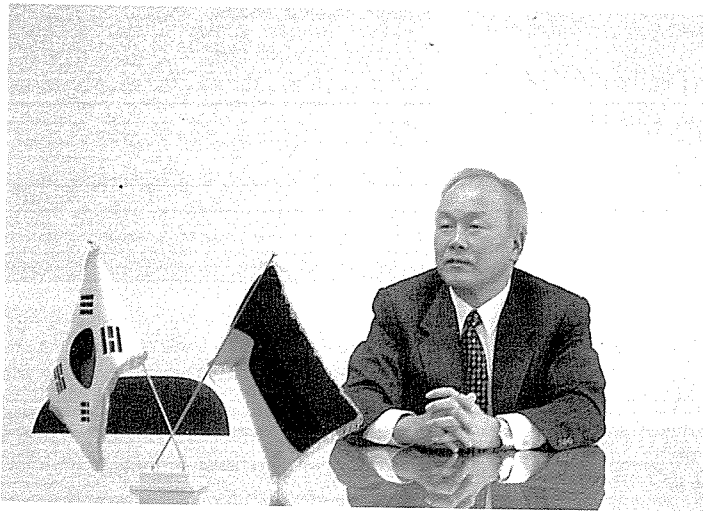




노트북 시장점유율 1위

내외반도체주식회사

91년 컴퓨터 노트북을 개척,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를 지켜온 내외반도체(주),
81년에 창업, 10여년만에 종업원 4백50여명에
연간 매출 1천여억원을 기록한 내외반도체는 처음부터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자체기술을 개발해왔다고 한다.



▲ISO 9001 인증을 획득할 때의 정창훈사장

내외반도체회사(대표 : 정창훈)가 노트북 PC 제조업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91년부터. 이때부터 국내 노트북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PC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이미 익숙히 알려진 내외반도체(주)는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탄탄하다.

창업 15년 ... 매출 연 1천억원 돌파

81년 정창훈대표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와 비교해 볼때 10여년이 지난 지금 종업원수만도 4백50명에 이르고 매출규모 또한 1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시적으로 거대해진 것도 그렇지만

중견기업으로 국내 우수한 대기업과 반도체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겨룬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특이할만하다.

일찍이 전자부품과 반도체소자의 유통으로 사업을 일으킨 정사장은 유통사업을 하면서 OEM 수출의 말로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실감함으로써 자체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교훈을 얻어 이때부터 제조업에 참여하기 위한 탄탄한 발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89년 상장을 계기로 미래의 컴퓨터는 가볍고 이동성이 강한 노트북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트북의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일찍부터 사업방향을 설정했다는 정사장은 이처럼 탁월한 아이템 선정이 오늘의 내외반도체로 탄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하게 된 노트북 PC '4560T75'도 바로 중소기업체로서의 발빠른 의사결정과 순발력에 크게 힘입어 출시하게 된 제품이라고 한다. 94년 한해동안 노트북 PC의 대중화를 위해 486SX급의 저가(低價)기종을 중심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쳐왔고, 95년에는 DESK TOP PC시장에서 시작된 멀티미디어 개념의 노트북 PC에도 영향을 끼쳐 노트북 PC의 DESK TOP PC화라는 시장환경 변화요인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내외반도체(주)는 사운드(SOUND)기능과 CD-ROM 드라이브의 구동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DOCKING

STATION을 통한 확장성에 중점을 두고 제품개발에 착수, '4560T75'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초에 노트북 새모델 개발

이 모델은 고급사용자를 위한 HIGH-END모델로서 16비트의 스테레오 사운드 카드와 스피커를 내장하고 PCMCIA타입 II 슬롯을 2개(PCMCIA 타입 II와 공동사용)지원하며 SCSI컨트롤러를 기본으로 내장하고 16비트 ISA 슬롯 2개, VESA슬롯 2개를 지원하는 DOCKING STATION이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특히 DOCKING STATION은 VESA LOCAL버스 슬롯까지 제공해 당장 DESK TOP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TFT방식의 9.4인치 디스플레이로 CRT방식의 데스크 PC와 동일한 선명도를 나타내며 BIOS가 아닌 일반 데스크 탑 PC에서 많이 쓰이는 AMI BIOS를 많이 사용하여 AMI BIOS셋업에 익숙한 사용자들은 보다 쉽게 노트북 셋팅을 할 수 있어 전원관리, PCMCIA슬롯 체크 등의 항목에서 정지, 복귀모드와 같이 노트북용 전원관리기능을 셋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운드카드를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스피커도 2개가 디스플레이 화면 밑에 양쪽으로 장착되어 있다. 하드디스크는 2.5인치로 520MB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며 메모리도 기본 4MB에서 36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3.5인치 FDD는 내장되어 있고 배터리는 NiMH로 모노 LCD일 경우 3시간, 컬러 LCD일 경우 2시간 가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순수한 자체기술로 경쟁

올 초부터 내외반도체 노트북 PC '4560T75'는 이러한 시장상황에 부합되어 2/4분기가 지난 현재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업체와 연구소 등 비교적 HIGH-END모델을 사용하는 계층에서의 구입비율이 높는데 동급기종에 비해 가장 높은 확장성과 멀티미디어 기능이 주효했다고 한다. 이번 노트북 PC '4560T75' 개발을 위시하여 내외반도체는 시장에 내놓고

는 노트북을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휴대폰에서도 지속적인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분야로 영역확장을 꾀하기 위하여 별도팀으로 IVHS(도로교통 자동관제 시스템), 공해관리시스템, 무인검침시스템을 연구할뿐 아니라 자동차 도난 경보기인 'HAWK'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사장은 제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용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모두 허사이므로 대기업에 비해 사용자들의 요구를 즉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소기업형만의 민첩성이 주효했고 처음부터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체기술을 개발한 것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시장 다툼은 의미가 없고 대만처럼 모듈의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트북은 사용자에게 따라 특성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며 이동성이 많은 사람은 기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크기가 보다 작은 것으로 선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한 내외반도체(주) 전경



▲내외반도체(주)는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자체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다. 사진은 SMT공정장면

택을 하고 DESK TOP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크기는 다소 크더라도 모든 기능이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 내외반도체(주)는 2001년 정보통신부분에서 전문기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출목표 5천억원 달성이란 전략을 세워놓고 매진하고 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